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여야 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현장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참으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기 도 인 도 자

찬 송 370장 다 갈 이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 하시네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덕 담 가족중어른

주기도문 다 갈 이



예배의부름 다 같이

민족 명절인 설을 맞이해 오늘까지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같이 설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시107:1)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이

찬 송 429장 다 같이

1.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2.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렵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3.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라 염려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후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기 도 가족 중

성 경 봉 독 살전 5: 16~18절 다 같이

16. 항상 기뻐하라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
나님의 뜻이니라

말 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인 도 자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올 새
해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많이 받게 되기를 소원합
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
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단순한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말합니다(롬 14:17).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뻐할 일
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
기적으로 꾸준히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먼
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꾸준히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여러 가
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 축복을 받게 되고, 적게 기도하
는 사람은 적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셋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사’란 좋은 일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도 포함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일을 만
나고 시련과 고통을 겪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